

통신서비스 (비중확대/Maintain)

이슈의 소음 속에서 투자 신호 찾기

- 9월은 영업정지, 신규 단말 출시, 단통법 도입 준비 등 영업 환경의 이슈가 많은 상황
- 규제/정책 측면으로는 주파수 용도 변경, 요금인가제 폐지안,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등
- 국내외 동향 변수 종합시 한국 통신서비스 업종 '비중확대', SK텔레콤 위주로 대응 권장

1. 9월 전략: SK텔레콤 위주로 대응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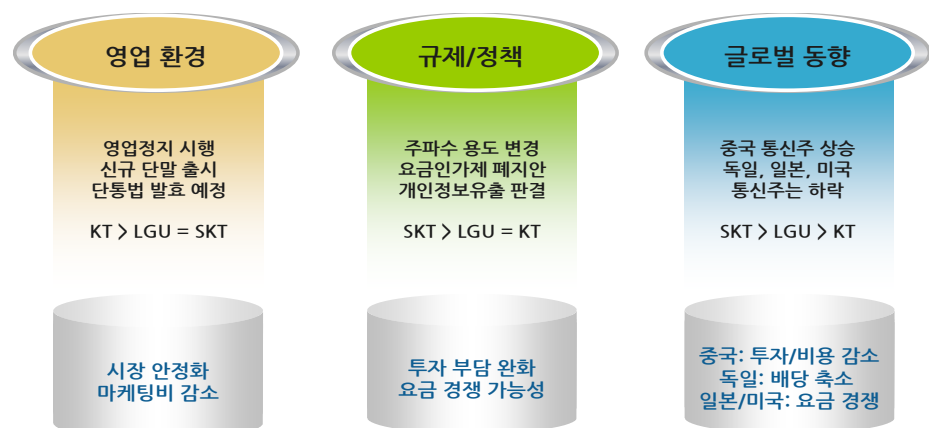
9월은 1) 국내 통신서비스의 영업 환경에 이슈가 많다. 9월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추석 연휴 전후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추석과 신규 단말 출시가 각 사의 영업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10월은 삼성과 애플의 신규 전략 단말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9월에 이통사들은 가입자 모집을 활성화하고 기존 단말 재고량을 소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어 3분기에 이통사들의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감소되는 추세가 유효할 전망이다.

2) 규제 및 정책 측면에서도 투자 및 경쟁 변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3G 주파수의 LTE 용도로의 전환은 투자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으며, KT와 SK텔레콤에 긍정적이다. 국회의 요금인가제 폐지안 발의는 23년만에 가시화되는 것이며, SK텔레콤의 사업에 자율성을 증진해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1심 판결은 KT에 부정적이다.

3) 글로벌 통신주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배당과 수익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 투자 때문에 배당 축소 계획을 발표한 독일 통신주는 하락세가 유난하며, 반면 LTE 대규모 투자 속에서도 비용 절감의 의지를 보여준 중국 통신주는 상승세이다. 또한 요금할인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 미국 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의 이슈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한국 통신주는 대체로 우호적인 신호가 많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하반기에 비용이 감소하고 투자 부담이 완화되면서 내년에 배당 여력이 증가할 수 있고, 요금 경쟁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각 이슈에 대한 영향에 따라 종목 중 **SK텔레콤 위주 대응을 권장한다**.

그림 1. 9월 국내 통신주 영업환경과 규제/정책 변수, 글로벌 동향 변수를 종합시 SK텔레콤 위주 대응 권장



2. 국내 시장 환경 변수: 9월은 이슈가 많은 달

(1) 9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간 중 추석, 신규 단말 출시가 변수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과열 지급을 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지난 1~2월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3월에 이미 처분한 건에 대한 시행 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추석 전 7일간 (8월 27일~9월 2일) 시행하게 되며, SK텔레콤은 추석 이후 7일간 (9월 11일~17일) 시행이 결정되었다. 추가적으로 과징금은 지난 5~6월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신규 처분된 건이다. 각각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천만원, LG유플러스 105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9월 영업정지 기간 중 대표 변수는 추석 연휴이다. 명절 기간은 선물 수요 등으로 번호 이동량이 계절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영업정지 시기를 고려시 유리한 순서는 영업정지가 아예 없는 KT, 추석 이후 대기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LG유플러스, 추석 이후에 영업정지 시기가 걸려있는 SK텔레콤 순이다.

신규 단말 출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알파'의 국내 출시는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6가 출시되는 9월 19일 이전에 갤럭시 알파를 출시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갤럭시 알파는 갤럭시 S5와 크기가 같고, 메탈 프레임이라는 디자인 차별화가 있다. 해당 모델의 선호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10월에 출시될 '갤럭시 노트4'에 비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소비자들은 특히 화면이 큰 패블릿(Phablet)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LTE 보급률이 60%에 도달했고, 단말 수준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교체 수요가 제감되고 있어, 해당 변수의 영향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2) 10월 신규 단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발효 시기인 점 고려

9월은 보조금 대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시기이다. 9월은 10월 바로 직전 달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발효되고 삼성과 애플의 주력 신규 스마트폰이 국내에 출시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이동사들은 10월 전에 가입자 모집을 활성화하고 기존 단말 재고량을 소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5월 영업정지가 풀린 직후의 과열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로 부과한 상황이다. 오는 9월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전후의 시장 과열에 대해 모니터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 이동사들의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감소되는 추세가 유효할 전망이다.

그림 2. 9월 영업정지 시기: 추석 전후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25	26	27	28	29	30	31
		LG유플러스 영업정지				
9/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석			SK텔레콤 영업정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그림 3. 9월 중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삼성전자, 연합뉴스

3. 규제 및 정책 동향: 투자 및 경쟁 변수 영향에 관심

(1) 미래부 3G 주파수 용도 전환: 투자 부담 완화 가능, KT와 SK텔레콤에 긍정적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단기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잘 분배하고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토양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미래부는 기존에 KT에 할당했던 2.1GHz 대역의 주파수를 LTE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당 2.1GHz 대역은 SK텔레콤과 관련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대역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결정은 KT와 SK텔레콤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2001년에 2.1GHz 주파수를 이동사들에게 할당할 때 IMT 비동기식으로 할당했는데, 당시에는 LTE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는 3G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LTE 기술이 생겼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근 IMT 비동기식에 LTE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동사가 LTE에서 주파수 묶음기술(CA: Carrier Aggregation)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각각 20MHz 대역폭의 주파수 3개(3CA)가 필요하다. 현재 실질적으로 3CA를 할 수 있는 이동사는 LG유플러스이다. LG유플러스는 작년 주파수 경매에서 2.6GHz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LTE 용도의 주파수 대역폭이 이동사 중 가장 많고 개수도 가장 많은 상황이다.

KT와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 2.1GHz 대역에 대한 용도 전환을 미래부가 승인해준다면, 3G의 20MHz 폭을 LTE 용도로 변경해 단기간 내에 3CA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경쟁사와의 주파수 자원 활용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2015년 말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부담이 적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부의 주파수 용도 전환은 KT와 SK텔레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고, LTE-A 투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LTE 투자와 관련해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통신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어, 한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용도 전환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현재 LTE 투자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 주요 통신사 세 곳이 공동으로 텔레콤타워를 설립해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하며 재무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고, 투자자들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림 4. 이동통신용 주파수 용도 전환의 가능성: KT와 SK텔레콤에 긍정적

구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합계	만료 (이용기간)
2G	800MHz	10			30	'21.6월 (10년)
	1.8GHz			20		
3G	2.1GHz	(60) 40	(40) 20		100	'16.12월 (15년)
LTE	800MHz	20	10	20	200	'21.6월/12월 (8~10년)
	900MHz		20			
	1.8GHz	35	35			
	2.1GHz	20	20	20		
	2.6GHz			40		
WiBro	2.3GHz	30	30		60	'19.3월 (7년)
주파수 보유량		155	135	100	390	

주: 대역폭 단위는 MHz, 2.1GHz 대역의 경우 기존 현황은 3G의 괄호 표시, 용도 변경의 경우 LTE로 대역폭 전환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국회 요금인가제 폐지안 발의: SK텔레콤에 긍정적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는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한국의 통신정책에는 요금인가제가 유지되어 왔다. 원래 의도는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사업자가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년간 이통사들은 보조금 위주로 경쟁을 지속했다. 국회의원들은 오는 10월의 단통법 발효 이후 ‘요금인가제’ 개선으로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법 개정 제안 의도를 밝히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지는 완화 움직임은 SK텔레콤의 사업에 자율성을 좀더 증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통신요금 도소매 규제는 시장지배사업자 요금 인가대상으로 KT 시내전화, SK텔레콤 이동전화를 규정하고 있다. 시내전화는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어 요금인가제의 의미가 적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이미 요금인하 시에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제 적용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OECD 국가 내 통신요금인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없으며, 정부는 2011년부터 인가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온 상황이다.

그림 5. 8월 19일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K텔레콤에 긍정적, 다만 시장 흐름 관찰 필요

주요내용

- 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함(안 제28조제2항).
- 나.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함(안 제32조의3 신설).
- 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함(안 제38조제2항).
- 라.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주: 8월 19일 의안번호 1911417,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정부의 통신요금 도소매 규제 연혁: 현재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 중

연도	규제 정책 변화		정부 발표 방안
	소매규제(요금)	도매규제	
1995	인가원칙, 신고예외		
1996	① 신고원칙, 인가예외 (인가대상) KT 시내전화, SKT 이동전화 ② 이용약관변경명령권 도입		
2001	시내전화요금 가격 상한제, 이동전화요금 유보신고제로 전환 추진		(정통부) 정보통신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방안
2004	정비대상으로 인가제 폐지를 장기검토과제로 분류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계획
2005	KT 초고속인터넷 인가대상 지정		
2007	1월 ① 이용약관변경명령권 폐지, ② 요금산정근거자료 제출 의무		(정통부)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일부개정 '07.1.3.)
	3월 ① KT 초고속인터넷 신고제 전환 검토, ② 결합판매 허용 검토	도매규제 도입 검토	(정통부)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2008	1월 ① 경쟁상황, 이용자 보호 등 고려한 인가 또는 신고의 조건부 면제, ② 도매규제 의무사업자의 경우, 인가 대신 신고로 전환	도매규제 도입 (의무사업자 선정)	(정통부)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제출 (정부제출 '08.1.28., 국회입법관리포기)
2009	KT 초고속인터넷 신고제 전환		
2010	요금인하 시, 인가대상 제외 신고제 적용	도매규제 도입 (의무사업자 선정)	(방통위)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전부개정 '10.3.22.)
2011	인가제 개선 추후 검토		(방통위) 통신요금 TF
2014	8월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미래부)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주: 음영은 실제로 도입된 규제, 자료: KISDI, 국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엄정 판결: KT에 부정적

최근 통신주 관련 정책 및 규제 이슈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및 판결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통신주 중 KT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현재 대표적으로 두 건의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2012년 7월에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이며, 이 건에 관련된 피해자 28,715명에 대한 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1심 판결이 지난주에 발표되었다. KT는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KT는 우선 해당 손해배상 금액 약 28.7억원에 대해 3분기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인식하고, 향후 판결 추이에 따라 환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2014년 3월에 보도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방통위가 6월에 8,5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처분했다. 그러나 별개로 이 건과 관련된 피해자 2,79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이 서울 중앙지법에 따로 계류 중이다.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은 2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야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KT에 대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영향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리스크 측면에서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커지고 빈번해지면서,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쉽게 구제받고,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관에 분명한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설계되었다. 최근의 KT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맥락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표 2. KT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진행 상황

2012년 7월 건	
발생 내용	가입자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진행 상황	1) 2014년 8월 22일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 피해자 2만8천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14년 3월 건	
발생 내용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3년 8월~2014년 2월)
진행 상황	1) 2014년 6월 26일 방통위 행정제재: 총 8천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피해자 2천796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천6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 해당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
KT의 대응	
대응 계획	1) 2012년 7월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 2)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자료: 연합뉴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4. 글로벌 통신주 동향: 배당과 수익성에 민감

(1) 통신주 주가 상승 지역: 한국, 중국

지난 한달 간 글로벌 통신주 중 아웃퍼폼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이었다. **중국**은 투자 및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중국 통신주는 올해 LTE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재무 부담이 여전히 부각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 China Mobile-China Telecom-China Unicom 등 통신 주요 3사가 텔레콤타워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향후 3사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하며 투자 및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2) 통신주 주가 하락 지역: 독일, 일본, 미국

지난 한달 간 언더퍼폼한 통신주는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순이었다. **독일**의 도이체텔레콤은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배당 축소 계획을 밝혔고, T-Mobile에 대한 딜이 무산되면서 Valuation 부담도 제기되어 주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일본**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요금 경쟁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및 수익성 하락 우려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은 NTT Docomo가 낮은 수준의 요금제 출시 이후 영업이익이 하락했고, 미국은 일본 손정의 회장이 보유한 Sprint가 미국 내 요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3) 한국 통신주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지난 한 달간 정부의 배당 촉진 정책이 제기되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통신주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고, 2분기 실적발표 이후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최근 한 달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연초 대비해서는 0.8% 수익률로 높은 편은 아니다. 연초 대비 중국 통신주는 5.2%, 이머징 국가 통신주 평균 3.1%, 미국 통신주는 2.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신주는 상반기에 주가 조정이 심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은 회복 곡선을 만들었다고 파악된다.

글로벌 통신주 동향을 살펴보면, 배당과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향후 통신주의 중요 변수로 판단된다. 하반기부터 마케팅비가 감소하고 LTE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배당 여력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배당 촉진 정책에 따라 배당 지급 관련 의사결정의 부담도 적어진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10월에 단통법이 발효된 이후 보조금 등 비용 이슈가 잠잠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입자를 모집하는 다른 도구로서 요금제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요금 경쟁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국회 미방위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주요 내용 중에도 “보조금 경쟁이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함”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한국에도 요금할인 경쟁이 나타날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6. 글로벌 통신업종 1개월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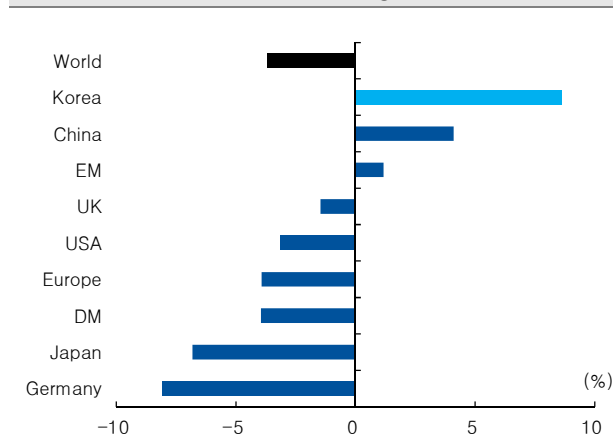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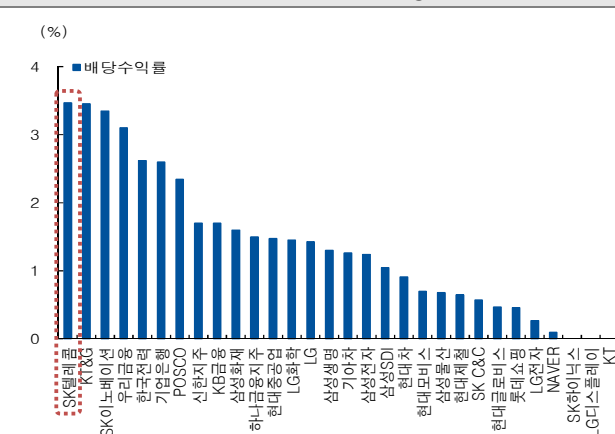


그림 7. 국내 KOSPI 30대 종목 배당수익률 현황: SK텔레콤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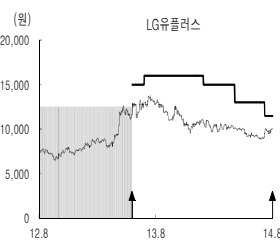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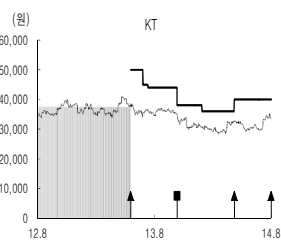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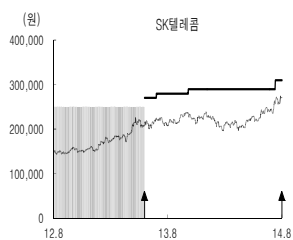


주: 8월 2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종목명(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종목명(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SK텔레콤(017670)	2014.08.03	매수	310,000원	LG유플러스(032640)	2013.07.19	매수	45,000원
	2013.10.29	매수	290,000원		2013.06.11	매수	50,000원
	2013.07.19	매수	280,000원		분석 대상 제외		
	2013.06.11	매수	270,000원		2014.07.31	매수	11,500원
분석 대상 제외				KT(030200)	2014.04.28	매수	13,000원
KT(030200)	2014.05.01	매수	40,000원		2014.01.20	매수	15,000원
	2014.01.20	Trading BUY	36,000원		2013.07.19	매수	16,000원
	2013.11.03	Trading BUY	38,000원		2013.06.11	매수	15,000원
KT(030200)	2013.08.04	매수	44,000원		분석 대상 제외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산업

비중확대: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비중축소: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비중축소(◆),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